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4. 전능왕 오셔서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산불로 잿더미가 된 소나무 숲 속에서 돌아나는 생명의 싹을 바라보며 눈물겨웠습니다. 생명이란 그렇게도 엄숙하고 존귀한 것임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이 갈마드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휘황한 빛을 바라보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사랑과 이해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살전2:19-20
♠ 교 독 문	18. 시편 67 편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대표기도	I. 조운숙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73.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성경봉독	I. 벰전 2:1-10
	II. 갈5:13-18
찬 양	박규석 집사
말 씬	I. 신앙의 자존감
	II. 순리대로 살라
거둠기도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다함께

헌신의 찬송	272. 인류는 하나 되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세상 유혹이 제 아무리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도 단호히 뿌리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울면서라도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심 약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활동	에베소서 강해(4)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 : 장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노순목 권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임원민 집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훈동	송동준	임창선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하현철	유영남	구명자	안정숙

기꺼이 인생을 긍정하라

전도서의 저자는 다른 점에서는 인생에 대해 별로 밝지 못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삶을 즐길 것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본시 자신의 체험에 의거하여 내성적 주관으로 인한 도피든 회의주의(懷疑主義)로 인한 도피든 세상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자신의 입장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인생이란 결코 만족스러운 성취를 볼 수 없으며 과연 삶의 보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지만, 생애의 말년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확언하고 있다.

나는 깨달았다 -

결국 사람에게는 잘 살고 즐기는 것보다
더 놓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3:12)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의 혈기를 억누르고, 무분별하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하지만,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유한다.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젊은 시절에 흥겹게 지내라.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전도11:9)

물론 이것이 무절제한 향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도서 저자의 전체적 논조로 미루어 명백하다. 그런데 바로 그가 (거의 章마

다) 무더기로 기쁨에 관한 말을 털어놓고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실상, 참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슬픔도 아는 것이 아닐까? 물론 천진난만한 어린이도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인생을 긍정하는 일은 아마 인간 실존의 취약성을 속속들이 체험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성서의 증언은 무게가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이나 불행에 부닥쳐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멀리하여 도피하거나 불쾌한 일들을 제쳐놓아도 안 된다. 뒷전으로 물러나서 이상만 꿈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형편대로, 그러나 즐겁게 지내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삶을 즐기라고 당부할 수 있을까? 중병에 걸렸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랑하는 이를 저 세상에 보낸 이에게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시오!” 하고 권한다면, 아마 모질게 여겨질는지 모른다. 그런도 소경도 빛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바로 이 이의(異議)에 문제 해결의 관건이 있다. 왜냐하면, 소심증 또는 그 밖의 심적 고통으로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외적인 태도를 고침으로써 그 인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너의 태도를 가다듬어라. 그러면 본원적인 바탕, 곧 내적인 뿌리도 덩달아 자랄 것이다. (Albert Goerres)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구약성서의 즐기찬 호소는 심리학의 법칙과도 일치한다. 그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현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꺼이 인생을 긍정해야만 사람은 스스로 회심(回心)할 수 있고 또한 주위세계의 변혁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또한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슬퍼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주위를 밝게 할 빛도, 변혁시킬 힘도 지니지 못한다.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성서의 당부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당부요, 결국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라는 당부이다.

(헤르베르트 하아크, 《즐거워하라》 중에서)

부활절 전후

섬진강 가의 매화라든가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잎이
지천의 수선화나 히아신스보다
내게는 더 곱고 더 그림기야 하지만
사순절 동안에 죽은 동생의 혼이
여기까지 찾아와 글썽이는 요즈음,
『뉴스위크』 잡지는 화려한 단장으로
‘과연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한다.

믿을 수 있는가, 매끄럽고 빠른 세월아,
부활절 며칠 전에는 함박눈 내리고
따뜻하고 어두운 땅 밑의 뿌리는
급한 마음 얼굴 내미는 나뭇잎을 향해
물 몇 방울 길어올리는 멀고 예민한 길,
그 길 따라서 높이 올라간 것은?
매화나 동백이나 수선화나 히아신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가는 목을 씻어가며
부활의 구석구석에서 깔깔 웃고 있구나.
(마중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오진훈 노순옥 이한림 김명희 구명자 이광용 형인순 박영희 이유선
방극숙 김훈동 유경순 왕성한 강순배

월정헌금:

이지훈 정진경 허광식 김명순 김흥기 최윤희 조병주 이갑재 곽권희
정원석 김현영 김윤정

감사헌금:

김기석 양재성 임미심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노순옥 김용길 최영혜
김종훈 안경숙 염혜영 조항범 오현정 한선희 김재영 김애경 왕성한
강순배 무명1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김미순 김주현

구도헌금: 김철수 김용길 최영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애 경	유 영 남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건 화	문 인 옥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문 복 순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권 명 자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박 혜 경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장애인선교주일** :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주일 헌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기획위원회** : 점심 식사 후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 모임으로 대치합니다.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 **심방** : 이번 주 심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 예루살렘, 금요일 - 가나안
6. **아름다운 원로모임** :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7. **신앙강좌** : 다음 주일 오후 집회는 제2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사무총장이신 양재성 목사님이 강의하십니다.
8. **신앙실천** :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편지, 혹은 이메일 한 통이라도 보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자원하는 심령

* 헌화 : 김춘려 장로 (남편 2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화요성서연구 10:30 중고등부실 ·목요성서연구 10:30 중고등부실